

동물용 소독약품 공급차질 없다!

일본, 조류독감 확산방지 혼연일체 ... 증산에 긴급수입으로 대처

일본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인됨에 따라 동물용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독제는 농림수산성의 긴급사태 비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류독감 소독제는 메이커들이 긴급 증산으로 공급부족을 막고 있다.

2003년 말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많은 대기업들은 일본지역 감염 확대를 경계하고, 증산계획을 세우는 등 대비했다.

일본에서는 Yamaguchi에서 감염이 확인되자 곧 재고의 대부분을 출하했으며, 현재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공급자 모두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소독약 생산기업 담당자들은 2003년 발생한 구제역 소동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물용 소독제의 일본 시장규모는 15억엔으로 주요 대기업에는 Meiji Seika(明治製菓), Shionogi(塩野義製藥), Nippon Zenyaku Kogyo(日本全藥), Bayer Medical 등이 있다.

Astop을 중심으로 5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1위 Meiji Seika는 재고분을 2일만에 출하하고 증산을 통해 서둘러 정상시의 재고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Kuriakiru 등을 통해 2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Boehringer-Ingelheim Shionogi Vetmedica도 최근 재고가 바닥나 제조 위탁기업인 Tamura Seiyaku(田村製藥)에 10-12개월분의 증산을 의뢰했다. 사태가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 예년의 3배에 달하는 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luta Clean 등을 판매하는 Nippon Zenyaku Kogyo는 자사 재고와 함께 제조기업인 Yashima産業이 2-3개월분을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재고 부족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고객기업 400-500사에게 2004년 7-8월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증산에 들어간다. 원료는 이미 확보했으며 생산속도는 용기 제조에 달려 있다.

Bayer Medical의 동물용약품 사업부는 일본에서 수입·판매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 Antec International에 소독제 Vircon S의 추가 긴급수입을 결정했다. 평소 일본 판매량은 100톤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3년 말 재고량을 2배로 늘렸으며, 추가생산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배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조류독감이 일본에서 발생하자마자 50톤을 항공편으로 변경해 곧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50톤은 배편으로 3월까지 도착한다. 수송경비 증가에 따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판매가격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02>